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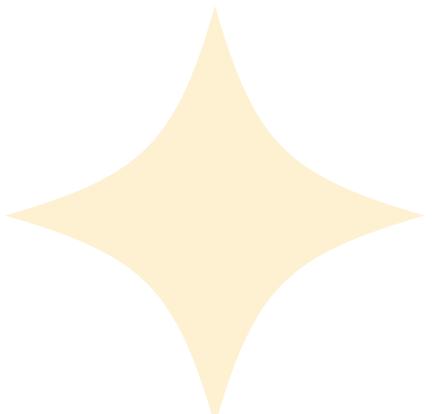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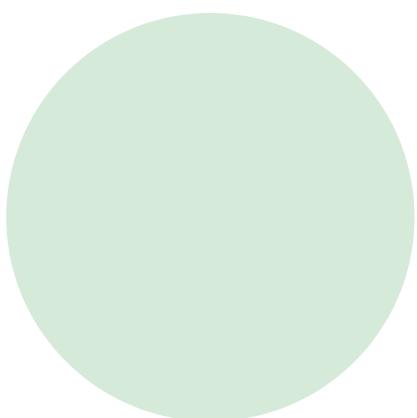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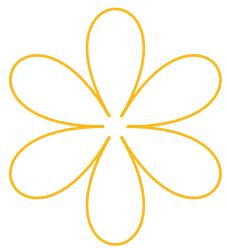
제7회 화성특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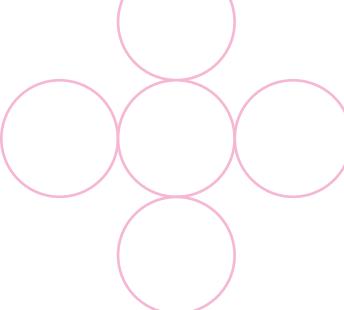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2025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Hwaseong City Women & Family & Youth Foundation





CONTENTS

목차

PART 01.

화성특례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대회 개요 / 4**

PART 02.

화성특례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우수정책 소개 / 16**

PART 03.

화성특례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활동사진 / 56**

화성특례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대회 개요

PART 1.







청소년이 제안하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1. 사업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

세부정책과제 '04 청소년의 참여·권리보장 강화

4-1. 청소년참여 활동 강화

- (1)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기회 활성화
- (2) 청소년 참여 역량 강화
- (3) 청소년 간 소통강화 및 공동체 역량 함양

2. 사업목적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 환경, 청소년정책 등에 관심을 갖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청소년 정책 대상자인 청소년의 시각에서 제안된 우수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 마련

3. 사업개요

- 일 시 : 2025. 7. 19.(토) 11:00~18:00
- 대 상 : 화성시 거주 또는 재학 청소년(만9세~24세), 개인 또는 팀
- 주 제 : 청소년이 제안하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 주최/주관 : 화성특례시/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추진일정



4. 사업추진내용

- 정책제안서 서류접수

▶ 제안주제

“청소년이 제안하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① 참여 ② 인권 ③ 진로 ④ 문화 ⑤ 교류 ⑥ 안전 ⑦ 생활 ⑧ 교통 ⑨ 환경 ⑩ 기타

- 다양한 분야에서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한 지역사회 문제 및 개선사항

-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를 맞이한 화성시 청소년의 목소리가 담긴 청소년 정책이나
아이디어

▶ **접수대상** : 화성시 관내 거주 또는 재학 청소년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 **접수기간** : 2025. 5. 12.(월)~6. 27.(금)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제안서 서식 작성 후 메일발송 또는 유스플래닛 정책제안게시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안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유스플래닛 소통과 참여-정책자료실: 정책제안서 작성 교육자료 및
청소년관련 법령 및 정책 참고하여 작성)

구분	내용
신청방법	① 유앤아이센터, 유스플래닛, 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내용 확인 ② 정책제안서 양식 다운 → 서류 작성 후 제출 → 담당자 확인메일 발송
유의사항	* 첨부 자료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제출 * 발표자료는 본선진출팀에 한하여 추후 별도 제출 * 본선진출팀은 본선진출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팀원 중 최소 1명이상 참석해야함

- 본선진출 서류심사

▶ **심사기간** : 2025. 7. 2.(수)~7. 4.(금)

▶ **심사위원** : 청소년 지도자 2인

▶ **심사기준** : 제안배경, 논리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 **심사발표** : 2025. 7. 9.(수)

▶ **발표방법** : 본선진출팀(7팀) 선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본선진출 워크숍

- ▶ **일시** : 2025. 7. 12.(토) 09:00~18:00
- ▶ **장소** : 화성시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및 세미나실
- ▶ **대상** : 본선진출 7개팀 25명,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
- ▶ **내용** : 발표(스피치) 교육(외부강사), 제안 정책 컨설팅을 통해 본선 발표 자료 준비 및 보완
- ▶ **일정**

구분	시간	세부내용
사전 안내	09:00~09:30	참석 확인 및 일정안내, 안전교육 등
발표 교육	09:30~12:00	발표력 강화, 구성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교육 진행
점심시간	12:00~13:00	점심식사
정책 컨설팅	13:00~18:00	정책제안의 현실성, 실행가능성, 창의성 보완 등 전문가 컨설팅 진행 연령별/주제별/3개 그룹 동시 진행

- 제7회 화성특례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운영

- ▶ **일시** : 2025. 7. 19.(토) 11:00~18:00
- ▶ **장소** : 화성시청소년수련관 2층 세미나실
- ▶ **대상** : 본선진출 7개팀 25명, 참여위원회 위원들, 청중평가단 18명
- ▶ **내용** : 정책제안대회 본선(정책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대회심사 및 심사평, 시상식 및 기념촬영
- ▶ **세부일정**

구분	시간	세부내용
본선대회 접수	11:00~12:00	- 본선대회 전반적 준비 및 사전 동선 확인
점심시간	12:00~13:00	- 점심식사
사전 안내	13:00~14:30	- 참석 확인 및 일정안내, 안전교육, 발표자 자료 확인 등
본선 발표	14:30~16:30	- 심사 및 시상 안내 및 심사위원 자료 사전 확인 - 국민의례, 심사위원소개, 인사말씀 - 팀(개인)별 발표시간 7분 내외[PPT, 영상, 판넬 등]
심사집계	16:30 ~ 16:50	- 심사점수 집계 및 휴게시간
종합 심사평	16:50 ~ 17:00	- 심사위원 종합 심사평
시상식	17:00 ~ 17:30	- 시상 및 기념촬영, 단체사진 촬영
마무리	17:30 ~ 18:00	- 청소년 귀가지도, 현장 정리 등

5. 본선심사 계획

가. 심사기준 : 제안배경, 논리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청중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배점
제안배경	청소년의 삶과 관계가 있는 주제인가? 정책을 제안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이 적절한가?	25점	70%
논리성	주제와 내용이 통일성이 있는가? 제안서 계획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 되었는가?	25점	
실현가능성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제시되었는가? 예산편성 등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하였는가?	25점	
창의성	제안한 정책이 기존에 없는 참신함을 갖추었는가? 청소년들이 가진 특색을 반영한 기발함을 갖추었는가?	25점	
소 계		100점	70% (70점)
청중평가	청중평가단 현장 심사 진행 발표 후 무선투표기를 활용한 투표	투표인원/ 현장인원%	30%
소 계		100점	30% (30점)
합 계		100점	

나. 심사방법 : 발표(PPT, 영상 등)를 통한 정책제안, 심사위원 현장 심사

다. 위원구성

구분	심사위원 구성	인원
전문심사위원	화성시의회 시의원	1명
	화성시 청년청소년과 팀장	1명
	청소년 관련 외부전문가	2명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1명
청소년심사위원	화성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1명
청중평가단	화성시 청소년(참여자치기구 등 일반청소년) 모집	18명
총 계		24명

6. 시상계획

가. 시상대상 : 본선진출 7개팀

나. 시상방법 : 상장피켓을 활용한 현장 시상 후, 추후 개별 상금 전달

다. 시상명 및 시상금

상명	시상금	건수
1등	50만원	1건
2등	30만원	2건
3등	10만원	4건



제7회 화성특례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추진실적

* 서류접수 44개팀 총 128명 접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번호	접수일	팀명	인원	내용
1	6월 1일	인사이트랩 (Insight Lab)	2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육 및 노동의 가치발견 성장프로그램
2	6월 3일	개인(강설화)	1	화성시청소년 학습자료 보편지원정책
3	6월 9일	청정농업	2	화성청정농업 미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해결개선안
4	6월 10일	일로온	4	중도퇴소 청소년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5	6월 10일	Don't worry	4	AI기반 미션형 가계부 앱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소비습관 형성정책
6	6월 11일	이어드림	5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이트 제작
7	6월 13일	티네이션	2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 의무화
8	6월 16일	히스토리헌터	5	정류장에서 다시피어나는 우리마을이야기: "타임스테이션 프로젝트"
9	6월 18일	나래	2	청소년 사회혁신 허브구축 및 활성화
10	6월 20일	새로고침	5	화성시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생태통로 기능개선 및 시민인식개선정책
11	6월 20일	장안맨	4	똑버스로 만드는 통학평등, 화성시 교육균형발전
12	6월 21일	만두	3	화성시 청소년 문화 해설사 프로그램
13	6월 23일	개인(김규이)	1	버스는 안오고, 택시는 안잡혀요 - 시민이동권 개선방안
14	6월 23일	안전keep보드	4	킥보드 도입 활성화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방안 제시
15	6월 23일	숨쉬는교실	5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간접흡연 저감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와 스마트 앱을 통한 금연 지도 제작 및 홍보
16	6월 23일	개인(이밀라나)	1	청소년심리상담 확대를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만들기
17	6월 25일	다같이놀자	5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및 개선에 관한 화성시의 역할제안
18	6월 25일	Ward(와드)	4	습지환경보호
19	6월 26일	ON:DO(온도)	5	정서적 위기청소년을 위한 AI감정치유인형 '온다(ON:DA)' 활용정서지원아이템 보급 및 프로그램 운영제안
20	6월 26일	온기(ON:GI)	3	온기품은 자리 시행
21	6월 26일	리본(RE:BORN)	2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만드는 '제로웨이스트 화성' : 양말목 업사이클링 기반 지역순환시스템 만들기
22	6월 26일	소셜 씨드	2	청소년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LED바닥조명설치 및 무상교통비 지원
23	6월 26일	청진기 (청소년진로기획단)	4	진로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번호	접수일	팀명	인원	내용
24	6월 26일	삐약이들	4	알고·찾고·회복하다: 화성시 청소년 정서복지 실현을 위한 제안
25	6월 26일	하율, 사랑	2	길거리 쓰레기통 및 주변 AI CCTV 설치 확대
26	6월 27일	신나는 화성만들기	4	통행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27	6월 27일	언젠가는 슬기로울 일상생활	2	청소년기본예절교육
28	6월 27일	Next Generation	2	청소년 마음 지킴이
29	6월 27일	개인(우수아)	1	경제력 차이로 인한 사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금 제공
30	6월 27일	개인(이은서)	1	청소년 진로 탐색을 위한 청소년 '진로를 찾아 카드' 정책 제안
31	6월 27일	개인(최리원)	1	청소년 독립 심리상담소 운영 정책
32	6월 27일	Re:Eco	5	'알고 쓰는 포장재, 지구를 지키는 선택' - 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친환경 소비 문화
33	6월 27일	사이언틴스트	5	화성시에 과학관을 설립하자
34	6월 27일	돈기부여	5	청소년 기본용돈지급
35	6월 27일	청화연	3	화성시에 진짜 화성을 만들자-행정H프로젝트
36	6월 27일	개인(정채은)	1	화성호 습지 보존을 위한 스마트 pH 자동 중화 순환기 기술 제안
37	6월 27일	개인(현진우)	1	화성시 진로 ON 버스
38	6월 27일	삼공구	3	화성시 청소년 자율성장학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안
39	6월 27일	UniSea(유니씨)	4	폐교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공간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
40	6월 27일	개인(임동현)	1	차도, 사람도, 교통약자도,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신호등
41	6월 27일	개인(최승원)	1	순찰중심 '모바일 치안팀 확대 배치'
42	6월 27일	개인(이채원)	1	청소년 자살률 저감을 위한 무료 상담실 확대
43	6월 27일	쓰레기제로	2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애플리케이션
44	6월 27일	코리오지킴이	4	화성시 보도블록 실시간 보수 사이트 운영
총계			128	

분야	사회참여	복지	인권	진로	문화	교류	안전
제안서 수	2	5	4	5	4	0	7
분야	생활	교통	환경	교육	기타	합계	
제안서 수	3	3	9	1	1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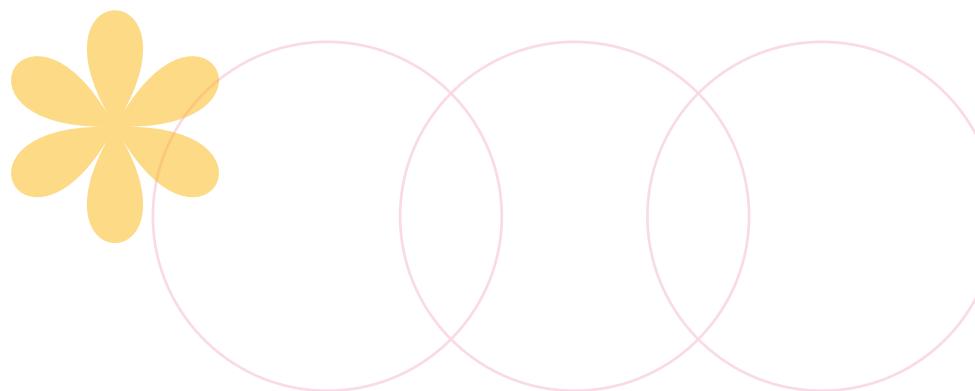
제안서가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한 분야로 배분

* 본선진출 7개팀 총 25명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번호	분야	팀명	인원	대표자명	소속	내용
1	생활	돈't worry	4	신주영	삼고 고등학교	AI기반 마션형 가계부 앱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소비습관 형성정책
2	사회 참여 문화	히스토리한터	5	유한선	삼고 중학교	정류장에서 다시 피어나는 우리마을이야기: "타임스테이션 프로젝트"
3	문화	만두	2	류현우	반송중학교 동아리홀씨	화성시 청소년 문화 해설사 프로그램
4	교통	개인(김규이)	1	김규이	우정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버스는 안오고, 택시는 안잡혀요 - 시민이동권 개선방안
5	환경	숨쉬는교실	5	이새들	반송 고등학교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간접흡연 저감을 위한 흡연부스설치와 스마트 앱을 통한 금연 지도 제작 및 홍보
6	인권 안전 생활	ON:DO(온도)	5	진채윤	장안여자 중학교	정서적 위기청소년을 위한 AI감정치유인형 '온다(ON:DA)' 활용정서 지원아이템 보급 및 프로그램 운영제안
7	인권 복지 안전 생활 교통	온기(ON:GI)	3	박소율	장안여자 중학교	온기품은 자리 시행
총계		25				

* 제7회 화성특례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수상내역

구분	상명	분야	개인(팀)명	시상금
1	1등	환경	숨쉬는교실	50만원
2	2등	문화	만두	30만원
3		인권, 안전, 교통	온기(ON:GI)	
4	3등	사회참여, 문화	히스토리헌터	10만원
5		교통	개인(김규이)	
6		생활	돈't worry	
7		인권, 안전, 생활	ON:DO(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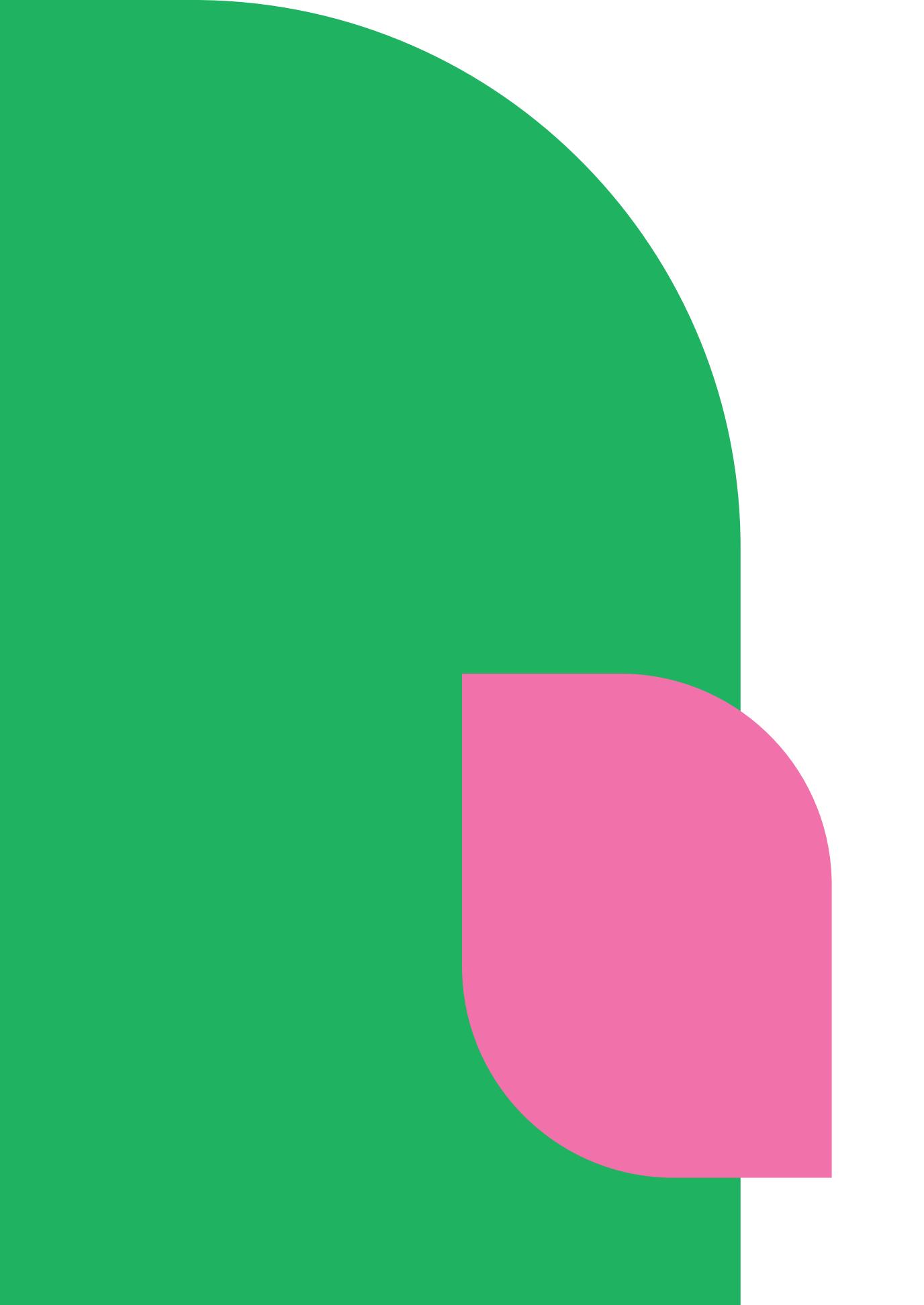


화성특례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우수정책 소개



PART 2



1등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간접흡연 저감을 위한 흡연 부스 설치와 스마트 앱을 통한 금연 지도 제작 및 홍보



정책제안분야

환경

제안내용 요약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도보하는 광장 등에서의 간접흡연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클린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흡연부스 위치와 금연구역을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참여형 금연 지도'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지도는 카카오맵이나 구글맵 기반의 플랫폼에 시민이 직접 정보를 추가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단속이나 처벌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제공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전환하고자 한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법령 제정이나 행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흡연구역 운영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캠페인 활동 및 정책을 제안한다.

숨쉬는 교실

반송고등학교 2학년 이새들
반송고등학교 2학년 이현서
반송고등학교 2학년 유연희
반송고등학교 2학년 최정원
반송고등학교 1학년 박시연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학교 환경 수업 시간에 우리 주변의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 반 친구들은 학교 인근의 환경 문제와 개선 가능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였고, 특히 학원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흡연 문제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소 기관지가 좋지 않아 호흡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사회에 문제를 알리는 활동으로까지 확장된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친구들과 프로젝트팀을 결성한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 반만의 문제가 아닌지 확인하고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 환경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 <학교 주변의 흡연 환경 문제> 반송고내 설문조사

★ 1단계: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는 '생활 속 공기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총 311명 중 210명(약 67.5%)이 '간접흡연'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또한, '학원가 주변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약 94.3%의 학생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학원가 및 거리에서 많은 학생이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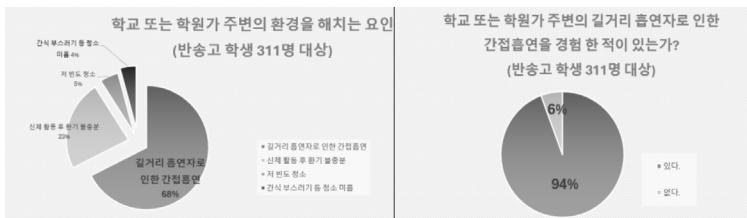


그림 2 <학교 주변의 환경 문제> 반송고내 설문조사 결과

★ 2단계: 지역 확대 설문조사 및 사례 수집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교사와 동탄 주민까지 대상을 넓혀 구글폼을 통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포스터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QR코드로 배포하였고,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응답 중에는 "학원이 밀집한 상가에서 간접흡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길거리에서 흡연자를 피하기 위해 코를 막고 달렸다" 등의 실제 경험이 다수 공유되었고, 특히 "흡연 공간의 부족과 어른들의 무관심이 근본 원인"이라는 응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동탄 남광장, 북광장, 나루상가 등 학원가 중심지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림 3 동탄 주민 대상 간접흡연 피해 사례 조사 설문조사 포스터

★ 3단계: 법령 조사 및 실태 분석

우리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광장 등의 공간이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사 시작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화성시 내 금연구역은 총 36,637곳에 달하며, 학생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한 남광장과 북광장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률, <https://www.easylaw.go.kr>). 또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12. 31.]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359호, 2024. 12. 31, 일부개정]에 따르면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에서 ①호 시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장소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②호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간접흡연 문제는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간접흡연은 근접거리에서 직접 흡연 수준으로 위험하고 폐암,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아이의



그림 2 <학교 주변의 호흡 환경 문제> 반송고내 설문조사 결과

신경발달장애, 중이질환, 호흡기계 증상, 폐기능 손상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이다. 특히, 아동에게는 상기도 감염이나 기관지 증상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이들의 폐 기능 증가 속도를 더디게 한다. 미국에서는 간접흡연과 연관된 폐암, 심장병 등으로 해마다 4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중 3~11세의 아동들이 간접흡연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이와 관련된 돌연사 피해자는 연간 4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 주변 광장 등지의 관찰을 통해서도 금연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흡연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금연 구역 표지판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흡연자들의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의 절대적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실제로 동탄 내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공공 흡연 부스가 설치된 곳은 2025년 6월 현재 동탄역 1곳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동선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서 공공 보건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다시금 인식하였고, 이 문제의 반복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안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림 5 화성시 흡연 방지 조례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 흡연 문제처럼 실생활에서는 서로 다른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비흡연자인 학생들은 헌법 제35조에 따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환경권)'를 주장할 수 있지만, 흡연자들 역시 행복추구권의 주체라는 점에서 권리의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는 처음에 단순히 "왜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서도 흡연을 계속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초기에는 흡연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만 생각했고, 금연만 실천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설문조사와 현장 관찰, 관련 조례 분석 등을 통해, 이 문제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흡연 공간 부족, 사회적 인식 결여, 제도적 대안 부재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이 얹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어느 한쪽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흡연자-비흡연자 동선 분리형 클린 흡연부스 설치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비흡연자의 환경권을 보호하면서도, 흡연자에게도 일정 부분 흡연권을 인정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기반 '참여형 금연 지도' 제작도 함께 제안한다. 해당 지도는 카카오맵이나 구글맵 기반 플랫폼에 흡연 부스 위치, 금연구역, 시민 제보 등을 시각적으로 통합하고, 누구나 정보를 추가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금연 인식을 확산하고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들의 균형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가진다.

특히 동탄 남광장, 북광장, 나루상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흡연자들이 "흡연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을 반복해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인식 향상과 흡연자-비흡연자 간 갈등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들의 균형 있는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실질적 갈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12. 31.]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359호, 2024. 12. 31. 일부개정]에 따르면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금연구역의 표시를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제9조(흡연 장소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흡연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자에게 흡연 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탄 지역에 설치된 공공 흡연부스는 동탄역 1곳에 불과하여,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성동구는 2022년부터 음압기술을 적용한 밀폐형 스마트 흡연부스를 운영해 현재 12곳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만족하는 시설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원도 감소했다. 현재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의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1,200~1,500명에 이르며,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역 6번 출구는 하루 최대 이용 인원이 2,700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 2. 25.] [법률 제100호, 1987. 10. 29., 전부 개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평화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림 7 대한민국 헌법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정 2024. 12. 31.] [경기도회법시조례 제2359호, 2024. 12. 31., 일부개정]

□ 제8조(금연 구역의 표시)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른 금연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 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흡연 장소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 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경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 시민의 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흡연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자에게 흡연 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그림 8. 화성시 흡연 방지 조례

흡연 민원 다발지역에서 수백 건씩 접수되던 민원도 현저히 감소하는 등 주민 만족이 높다. (참고기사 https://m.weekly.cnbnews.com/m/m_article.html?no=168189)

한편, 이 같은 '클린 흡연 부스' 설치와 흡연자-비흡연자 동선 분리 정책은 해외에서도 그 타당성과 실효성이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2020년 개정된 건강증진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공장소 내 '흡연 부스(분리형 흡연실)' 설치를 제도화하였으며, 미성년자 출입 제한, 환기 기준, 밀폐 구조, 자동문 설치 등 구체적인 시설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도시에서는 공원, 광장, 상업시설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으며, 히로시마시는 시내 중심 공원 6곳에 야외 흡연 부스를 마련하고 금연구역 외부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흡연 민원을 줄이고 공간 분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흡연자의 권리와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비흡연자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양립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22962i>)

또한 흡연자의 천국이라 불리던 일본 사회에서도 이 같은 정책이 국민 다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서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설치된 흡연 부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이를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스마트폰 기반의 '참여형 금연 지도' 제작도 함께 제안한다.

이지도는 카카오맵이나 구글맵 등 기존 지도 플랫폼과 연동하여, 시민 누구나 흡연 부스의 위치, 금연구역, 흡연 가능 구역, 불법 흡연 신고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사용자 참여 기능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불법 흡연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나 흡연 부스의 혼잡도, 불편 사항 등을 직접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정책 반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9. 동탄역 주변 금연 지도 예시 자료

이러한 '참여형 지도'는 흡연자에게는 흡연 가능 공간을 안내하고, 비흡연자에게는 금연 구역을 사전에 파악하게 해주는 정보 도구로 기능함과 동시에, 흡연 부스 설치 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 내 금연 질서와 건강권 보호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화성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2주간의 캠페인 기간 동안 총 354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였으며, 흡연부스 설치가 단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필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맵과 구글맵 등 스마트 앱을 활용한 '참여형 금연 지도' 제작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자, 지역사회의 건강권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실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0 화성 시민 대상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서명운동



기대효과

1.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시민 건강권 보호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금연구역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2. 흡연자-비흡연자 간 권리 갈등 완화

클린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흡연 가능 공간을 안내함으로써 흡연자에게는 일정한 흡연권을, 비흡연자에게는 환경권을 보장하여 상호 존중 기반의 공공질서 확립 가능.

3. 정책 실효성 및 시민 수용도 향상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서명운동, 지도 앱 활용,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금연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4. 시민 주도 공공정책 문화 조성

서명운동과 참여형 금연지도 제작을 통해 시민이 정책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전환되며,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과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음.

5. 앱 기반 금연 흡연 공간 시각화로 정보 접근성 강화

금연구역은 빨간색으로, 흡연부스는 점으로 표시된 '금연 지도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무지에 의한 위반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단속 갈등을 줄일 수 있음.

6. 차별보다 인식 개선 중심의 스마트 홍보 실현

앱과 시각화 지도를 활용한 사전 안내는 단속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며,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더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금연 문화 정착에 기여함.

참여후기

이새들 -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한 문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배움이 있었다. 대회에 참여하며 우리 팀의 정책제안 내용 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의 내용도 살펴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진 것 같다. 모든 의견이 다 실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정책제안대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현서 - 청소년이라는 신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주제선정부터 정책제안까지 할 수 있어 정말 인상깊었다.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도 찾아보며 화성시 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우리의 정책이 현실에서 실현되어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유연희 - 이번에 청소년 정책 대회란 것을 처음 알게되어서 방법도 모르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미숙한 부분이 많았지만 결국엔 잘 끝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올라온 본선 대회에서 창의력이 돋보이는 팀도 많았고 다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다. 우리 팀도 연습을 많이 했어서 긴장하긴 했지만 전하려고 했던 건 다 전달해서 좋았다. 청소년이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게 되어서 떨렸고 실제로 우리의 제안이 실행되어 피해받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최정원 -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각 팀이 제안하는 정책을 듣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형성하며 배울 수 있는 점이 이번 대회의 장점이라고 보았다. 또한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대회라는 점에서 어른들과 청소년이 소통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어른들만의 사회참여가 아닌 나이에 무관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회이기에 앞으로도 이런 대회나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시연 - 화성시 정책 제안 대회를 나가게 되면서, 직접 내 주변부터 돌아보게 되고, 생각보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이 사소한 정책들로 인해서 새로 더 편리하고 이롭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직접 제안하면서, 먼 이야기 같던 정책을 참여하여 시민들의 생활을 청소년인 내가 직접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화성시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청소년의 시각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의견을 내고, 정책을 제안하게 돋는 점에서 꼭 필요한 대회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 대해 알게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2등

화성시 청소년 문화 해설사 프로그램



정책제안분야

문화

제안내용 요약

화성시 내 주요 문화시설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각 문화재의 사전지식과 현장 방문 교육을 진행하여 실제 현장 가이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함

만두

반송중학교 동아리홀씨 3학년 류현우

반송중학교 동아리홀씨 1학년 연준영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화성시에는 훌륭한 문화재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문화재나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주변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성시에 청소년 역사 관련 프로그램이 적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직접 문화재를 조사하고 설명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문화 해설사'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화성시에도 도입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화성시의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생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그 가치를 알리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로 현장에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재를 소개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과정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 화성시의 실제 문화유산 현장에서 시민들과 학생들 앞에서 직접 해설을 진행함으로써 자신감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청소년들의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해설 활동을 수행한 청소년에게 수료증이 발급되며, 1365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됩니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화성시 청소년 문화해설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참가 희망 청소년 자기소개서 제출

2. 자기소개서 검토 및 면접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 선출

3. 프로그램 참가자 교육 진행

① 기본 교육: 화성시의 문화재와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② 전문 교육: 해설 방법, 대본, 발성 등의 현장 해설에 대한 교육

③ 현장 교육: 각 현장에서 모의해설을 진행하고 내용 보완

화성시의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해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화성문화원'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4. 현장 해설

① 교육과 모의해설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방문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설명

② 참가자별 지정 구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현장 해설 진행

5. 평가

① 참여율, 출석률, 해설, 태도 등을 평가

② 평가 결과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료증 발부

(화성시청, 화성문화재단, 화성오산교육청 등)

③ 참가자 전원에게 1365 봉사실적 등록

- 해설할 문화재로는 대표적인 화성시의 문화재 다섯 곳을 추천합니다.

▶ 용건릉

▶ 용주사

▶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

▶ 매향리 평화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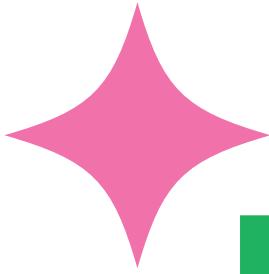
▶ 남양 성모성지



기대효과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어 프로그램을 주도함으로써 주인의식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많은 시민들 앞에서 해설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리더쉽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화해설사로 참여하는 청소년과 방문한 청소년 모두 화성시 문화재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역사 관련 전문 탐색 기회가 확대됩니다. 청소년들이 문화재에서 해설을 한다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민과 관광객의 문화 이해를 돋습니다.



참여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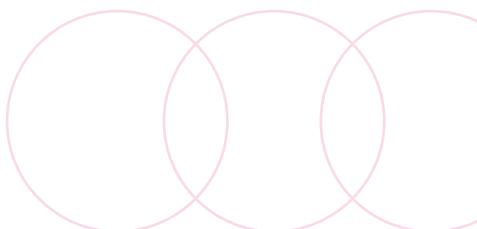
저희의 작은 아이디어가 화성특례시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본선에 올라가고, 2등이라는 상까지 받게 되어서 정말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부족하고 엉성했지만, 사전에 진행된 워크숍에서 받은 여러 의견을 참고하면서 보고서를 더 알차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 화성시에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치면서 점점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완성된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었지만, 청중들이 발표를 잘 들어주고 반응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질문도 받았는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 많아서 저희 발표를 진지하게 들어주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 생각을 발표해 본 경험 덕분에 저희도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2등

온기 품은 자리 시행

정책제안분야

인권, 안전, 교통

제안내용 요약

대중교통에 영유아 지정석 설치 및 활성화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인식 개선

온기 (ON:GI)

장안여자중학교 1학년 박소율
장안여자중학교 1학년 염재은
장안여자중학교 1학년 윤하영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성인 중심의 보호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체가 작고 보호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와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온기'이라는 팀의 일원으로 조암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많은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느꼈던 문제는 대중교통 내 영유아를 위한 지정석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매우 형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화성특례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104만 명 중에 20만 명 정도로 화성특례시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매우 많지만, 정작 이러한 영유아들이 누릴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제2조(정의)에만 교통약자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이 포함된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21년에 보도되었던 신문 기사에 의하면 김해시에서는 저상버스를 늘린다고 하였으나 저상버스에 유모차 고정장치가 없어 유모차에 탄 채로 버스에 탑승하였던 아이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아이의 부모가 버스 기사에게 리프트를 내려달라며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시관계자는 관련 지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뉴욕시에서는 유모차를 접지 않고도 쉽게 탑승이 가능한 MTA버스를 대폭 늘린다며 7개의 노선으로 노선으로 142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시애틀에선 버스기사들이 유모차를 발견하면 출입구의 높이를 낮춰준다거나 버스기사들이 직접 유모차 고정방법에 대해 시범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복지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반면, 한국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라는 식의 시선을 받기에 영유아 동반 가정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 안에서만 해도 인천광역시에서는 2021년에 훨체어리프트가 설치된 인천e음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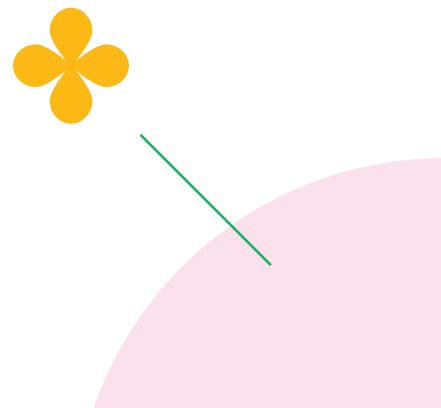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화성특례시의 첫 번째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영유아가 심각한 위험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 좌석은 성인의 몸 크기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나 어린이가 앉기에는 너무 크고, 안전벨트도 체형에 맞지 않아 제대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안고 있더라도, 급정거나 충돌 시 충격을 몸으로 다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지키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보호자가 안고 있던 영유아가 사고 발생 시 텅겨 나가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모차 탑승의 어려움과 위험성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유모차를 가지고 타는 보호자는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유모차는 바퀴가 자유롭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량이 급출발하거나 급정거할 때 흔들리거나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사로나 작은 턱을 지날 때 유모차가 기울어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아이에게도, 다른 승객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유모차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보호자가 직접 잡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이 부족한 보호자는 다른 승객에게 요청해야 하지만, 혼잡한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승객과 운전자 모두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점입니다. 보호자는 항상 유모차가 움직이지 않을까,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운전자는 차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대중교통의 이용 만족도를 낮추고, 결국 대중교통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식의 부족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호자에 대해 '불편을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영유아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이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 동반 가정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온기 품은 자리'라는 이름의 정책을 통해 영유아도 안전하고 눈치보지 않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온기품은자리'은 대중교통 내 영유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지정석 설치와 안전장치 마련을 중심으로 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물리적 환경 개선과 인식 개선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영유아 지정석 설치 및 안전장치 의무화입니다.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영유아 전용좌석'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해당 좌석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영유아 체형에 맞는 휴대용 카시트 구비 좌석

→자율 교통약자석 확보 (일부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착석 가능)

→유모차 고정용 고리 또는 벨트

→보호자 동반 착석 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보조의자

이러한 설비는 기존 좌석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신규 차량에는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도록 합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운영 기관과 협력하여, 먼저 혼잡도가 높은 노선이나 유아 이용률이 높은 지역부터 시범 설치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온기품은자리 인증제' 운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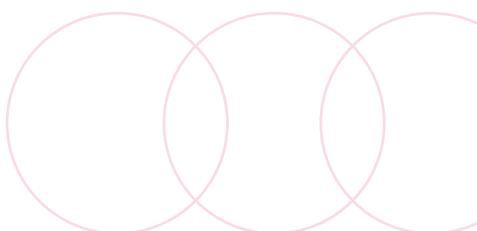
영유아 보호 친화적인 차량에는 '온기품은자리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승객들이 쉽게 식별하고 해당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인증제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지역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마크 디자인과 슬로건을 개발하고, 이를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캠페인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유아 보호 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운전기사, 교통 관계자,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영유아 탑승 시 유의사항, 유모차 안전관리, 배려 문화 등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 청소년들이 봉사자로 참여하여,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호자용 안내 키트' 대출 및 반납 시스템입니다.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에게는 대중교통 탑승 시 유모차 고정용 벨트, 탑승 안내 스티커, 안전 수칙 안내문 등이 담긴 키트를 입구에서 대출하고 하차시 다시 반납할 수 있도록하여 분실의 위험을 줄이고 제작비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온기품은자리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장입니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품에 안고 탑승하거나, 유모차를 직접 고정해야만 했던 불안한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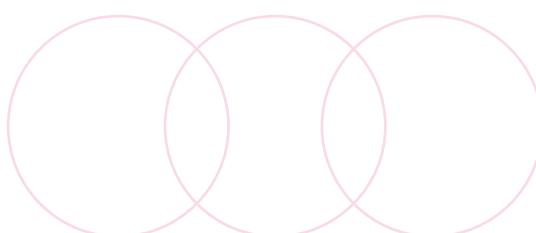
두 번째로는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이 감소합니다.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생겼던 불안과 눈치를 덜 느끼게 되면서, 보호자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고, 외출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 동반 가정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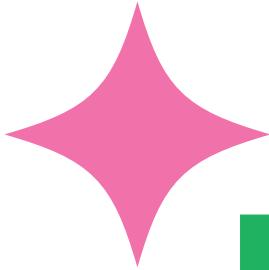
세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로 인한 긍정적 피급 효과입니다. 보호자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게 되면, 교통 체증 완화와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운전자와 다른 승객의 안전과 신뢰도 향상입니다. 유모차나 아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생기는 돌발 상황이 줄어들면서, 사고 위험도 낮아지고 운전자의 부담도 감소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의 안전성이 높아지면, 시민들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지고, 서비스 품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효과입니다. 대중교통에서 영유아를 배려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공공장소에서의 배려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됩니다.

결국 이 정책은 영유아를 위한 작은 좌석 하나에서 시작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드림이 실현된다면, 화성시는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존중받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전국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후기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과 열정을 가득 담아 새로운 시대의 주역들에게 따스함을 전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특례시 장안면 장안여중에서 온 '온기'입니다.

'온기' 팀은 모두 1학년 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직은 어리고 미숙할 수 있지만 그 순수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겁다고 자부합니다. 아이디어 창출부터 자료조사, 발표자료 제작과 직접 발표까지 모두를 맡은 팀장 박소율, 자료 수집을 담당한 윤하영 팀원, 콘텐츠 기획을 맡은 염재은 팀원이 함께 힘을 모아 이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희 팀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본선 진출뿐 아니라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담당 선생님, 이종민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권대륜, 서유선, 박주연, 이현희 선생님을 비롯한 장안여중의 모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사랑, 김서희 선배님께서도 자료 제공과 응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말에 직접 대회장을 찾아 응원해주신 한상윤 교감선생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처음 팀이 구성되었을 때만 해도 발표도 어색하고 준비도 미숙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대회 접수까지 단 일주일밖에 없던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준 팀원들에게도 고맙고, 무엇보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지도해주신 이종민 선생님의 정성과 헌신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제 인생의 첫 대회였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었지만, 설렘 또한 가득했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난 뒤 심사위원님들의 미소를 보며 한 달 동안의 여정이 떠올라 울컥했던 그 순간은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또 무대에 올라서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손이 떨릴 만큼 긴장했었는데 앞을 보니 권대륜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웃어주셨고, 덕분에 마음을 조금이나마 놓고 발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기억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힘써주신 화성특례시 정책제안대회 STAFF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온기' 팀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학생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팀 '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등

정류장에서 다시 피어나는 우리 마을 이야기 타임스테이션 프로젝트

정책제안분야

사회참여, 문화

제안내용 요약

버스 정류장은 일상 속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 공간이지만, 대부분 시설명 위주로 구성되어 마을의 지명 유래나 이야기는 점차 잊히고 있습니다.

‘타임스테이션 프로젝트’는 정류장을 활용해 지명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QR코드, 캐릭터, AR 콘텐츠 등으로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히스토리언터

삼고중학교 3학년 유한선

삼고중학교 3학년 홍진표

삼고중학교 3학년 JIN YANG(김양)

삼고중학교 2학년 남연우

삼고중학교 2학년 조춘배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화성시 우정읍과 조암지역 등에는 오랜 세월 간 축적된 지명과 유래, 마을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주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외부 방문객, 외국인 관광객 등은 마을 이름의 의미나 역사적 맥락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지역 정체성 약화와 문화적 자산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현행 안내판이나 지역홍보 자료는 대부분 텍스트 중심으로 구성되어 흥미 유발 요소가 매우 부족합니다. 청소년이나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실제 현장을 살펴보면 표지석 외에는 어떠한 설명도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지명의 역사적 유래를 전혀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많은 정류장은 지역의 옛 지명 대신 'OO초교', 'OO아파트' 등과 같은 주변 시설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간혹 예전 지명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왜 해당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부재하여 시민들이 그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맥락 없이 명칭만 존재하는 상황은 마을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주민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을 '타임스테이션'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정류장은 대기 시간이 존재하고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주민과 학생들이 가장 자주 머무는 장소인 버스 정류장을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알리는 '타임스테이션'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공간을 넘어, 누구나 지역 이야기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머무는 버스 정류장을 지역 기억을 담은 문화 체험 공간인 '타임스테이션'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정류장은 접근성이 높고 대기 시간이 존재하는 생활 공간으로, 지역 지명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타임스테이션 프로젝트는 정류장을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QR코드 부착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 지명 유래, 인물, 유물 정보를 연결해 간편하게 접근

2. 시각적 체험 요소 도입

: 캐릭터, 일러스트, 포토존 등 청소년 제작 콘텐츠 활용

3. 스토리 기반 지명 유래 게시판 설치

: 단순 정보가 아닌 이야기 중심 구성

4. 다양한 이용객을 위한 안내 시스템

: 무장애 이용을 위한 안내시설, 노령층을 배려한 큰 글씨, 야간 이용객을 위한 조명 센서 설치 등

5.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을 통한 지속성

: 전자지도, 내비게이션, 지역캐릭터 게임화(히스토리몬GO), 캐시워크와 연동 포인트 지급

6. 타임로드

: 버스 스크린 모니터기반 지역유래 정보 전달방 구축(청소년이 만든 타임스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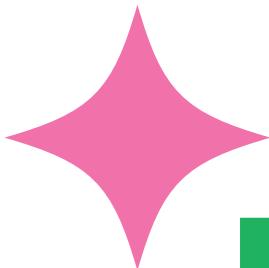
7. 시범 운영 후 단계적 확대

: 초기 1~2개 정류장(어은리, 독정리, 조암4리)에 설치, 점차 확산

기대효과

1. 청소년에게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높이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자기 주도성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지역사회에는 정류장이 일상 속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마을 정체성이 회복되고, 세대 간 소통과 주민 주도 문화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3. 정책적으로는 소규모 예산으로 교육문화관광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모델이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정책의 성공 사례로 확장 가능합니다.





참여후기

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 지역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여 우리지역을 살리는 활동이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문제점이나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보다 더 큰 곳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좋았던거 같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작은 우리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수 있다는 말에 실감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나은 우리지역을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3등

버스는 안 오고, 택시는 안 잡혀요 청소년 이동권 개선 방안

정책제안분야

교통

제안내용 요약

경기도 화성시 남부·서부의 팔탄면, 송산면, 남양읍, 우정읍, 장안면 등은 청소년 인구가 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조암의 삼괴고등학교는 버스 배차 간격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와 달리 8시 등교제를 시행 중이며, 이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하루 한두 대에 불과한 버스 운행과 등·하교 시간대 미운행은 교육, 문화, 사회참여 활동 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기회 제한을 초래한다. 똑버스, 이음버스, 행복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이 일부 지역에 도입되고 있지만, 조암을 비롯한 외곽 지역 청소년들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규이(개인)

우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시너지' 김규이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화성시, 대중교통 취약지역 맞춤형 마을버스 운행

- <https://naver.me/G7CBHDkU>

서철모 화성시장 "고령마을버스 27개 노선 추가 개통"

-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1510

만1세 단위 인구현황(2025.1월말)

- [https://www.hscity.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
do?q_fileSn=766536&q_fileId=d3ec52d7-a032-496f-9039-09c2eb615c8c](https://www.hscity.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766536&q_fileId=d3ec52d7-a032-496f-9039-09c2eb615c8c)

화성시 버스공영제 성과와 과제, 교통 취약지역 든든한 '시민의 빌' 자리매김

- <https://www.kyeongin.com/article/1579296>

자율주행 차량, 내년 화성서부지역 누빈다

-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310_0003092596

경기도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간 지역 격차가 심각한 편이며, 특히 화성시 남부와 서부의 읍·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심각한 교통 취약 문제를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암을 비롯해 팔탄면, 송산면, 남양읍, 우정읍, 장안면 등은 청소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또한 화성시 전체 청소년 인구수(173,010명)와 서남부권 청소년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 서남부권의 청소년 인구수는 약 55,363명으로 3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부권 중 교통 취약 지역(우정읍, 서신면, 송산면, 팔탄면, 비봉면, 매송면, 마도면, 양감면, 장안면, 정남면 총 10곳)의 청소년 인구는 약 14,878로 26.9%를 차지하며 생각보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조암을 포함한 화성시 외곽 지역의 청소년들은 하루 한두 대에 불과한 버스 배차, 등·하교 시간과 맞지 않는 시간대 운행 등의 문제로 일상적인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교육 접근권(학교,

학원, 도서관 이용), 문화 향유권(공연, 전시, 여가 공간 이용), 사회참여권(봉사, 회의, 활동 참여) 전반을 약화시키며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 및 올바른 성장을 방해한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똑버스, 행복택시, 이음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도입되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조암을 비롯한 다수 외곽 지역 청소년들은 여전히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경기교통공사

- <https://naver.me/Fw7DILeV>

똑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맞춤형 교통수단 확보기준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의 구조는 유지하되,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방과 후 시간대에 한해 청소년 맞춤형 운행시간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외곽 지역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육·문화·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맞춤형 시간대 운행 도입운영 시간: 방과후 시간대

이 시간 동안에는 기존의 똑버스 운영과 청소년 맞춤형 운영 시스템 병행.

청소년의 방과후 학원, 독서실, 청소년시설, 문화·여가공간 이용에 초점을 맞춘 시간대 운영

2. 지역 간 이동 허용

기존 똑버스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했으나, 청소년 맞춤형 시간대에 한해 향남 ↔ 장안, 남양 ↔ 새솔, 봉담 ↔ 매송 등 인접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하여 외곽 지역 간 청소년 이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단절로 인한 활동 기회 상실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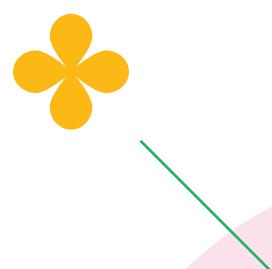
3. 예약 시스템 개선 및 이용 편의성 확보

모바일 앱 내 청소년 인증 기능 추가(청소년증 연동)

똑타어플에 청소년 시스템 도입 → 청소년 카드 활용 청소년 인증 표시 도입 → 인증한 청소년 추가 카드 등록 없이 청소년증 활용하여 바로 똑타어플 이용 가능.

4. 학교와 연계 운영

지역 내 학교와 협력해 탑승 수요 사전조사 및 시간대 조정



기대효과

- 청소년 이동권 실질적 보장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외곽 읍면 지역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동의 제약 없이 학교, 학원,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생활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 교육·문화·사회 참여 기회 확대방과 후 시간대 청소년 맞춤형 운행을 통해 학습 공간(학원, 독서실)뿐 아니라 문화시설, 여가공간, 청소년기관 등의 접근성이 높아져 교육 기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향유권 및 사회참여권 확대에 기여한다. 특히 외곽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 간 교통 단절로 활동 기회를 포기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 기존 똑버스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기준 똑버스 시스템의 강점은 유지하면서, 청소년 맞춤형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비용대비 높은 효율 사업으로 확장 가능하며, 운영시간과 구간을 최적화함으로써 다른 시간대의 비효율 보완이 가능하다.

참여후기

이번 화성특례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 개인으로 참가한 만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리며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처음엔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도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이후엔 아이디어를 다듬으며, 수차례 방향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고민과 조정을 통해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청소년의 시각에서 충분히 의미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또래 청소년들이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떤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우리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3등

AI 기반 미션형 가계부 앱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소비 습관 형성 정책

정책제안분야

생활

제안내용 요약

don't worry는 연령, 성향, 습관에 맞춘 AI 분석을 통해 자신의 소비습관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용돈 사용 습관을 길러주는 AI 기반 미션형 가계부이다.

don't worry

삼고고등학교 2학년 신주영
삼고고등학교 2학년 박시은
삼고고등학교 1학년 변준상
삼고고등학교 1학년 정나래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오늘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는 우리 일상이 될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소비문화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브랜드를 중시하고 외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고가 물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아 물질주의 성격을 띠는 SNS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다. SNS 속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따라 사면서 본래 제기되고 있던 '청소년 과소비' 문제가 더욱 대두되었다. 2013년 용인에서 주최한 청소년 논술·토론회의 수상작인 '청소년 소비문화의 형태와 해결방안'을 보면,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행동 및 교육 요구'를 설문조사한 결과 2013년 당시에도 모방소비를 경험한 응답자가 80%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 소비문화 패턴을 과시와 모방, 짧은 소비 주기를 문제삼았다. 이렇게 2010년 초반에도 청소년의 과소비가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는데 2010년 전후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더욱 대두된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일정한 금액의 용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소비 및 저축 습관을 갖춘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18세 청소년의 61.3%는 소비 지출 계획 없이 용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비율은 30% 미만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금융 문해력은 전 연령층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초적인 저축 개념이나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기에 형성된 체계적이지 않은 소비 습관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어져, 과소비 및 재무 위기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가계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용돈, 즉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어 기록하며, 매달의 지출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마치 공부처럼 느껴져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계부를 쓸 때 필요한 기초 경제 개념들에 대해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함을 느낀다. 숫자를 일일이 계산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할까 봐

걱정되고, 틀리면 안 된다는 압박감도 들어 가계부 작성은 어렵고 귀찮게 느끼게 된다. 결국 가계부는 나의 소비를 돌아보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부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작성 자체를 꺼리게 된다.

다음으로 가계부는 종이로 쓰는 옛날 방식이라는 인식이 강해, 지금처럼 다양한 디지털 수단이 있는 시대에는 굳이 손으로 일일이 수입과 지출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이나 고등학생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번거롭다고 느끼며, 가계부 작성 자체를 낡고 구식적인 행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계부 작성은 하지 않게 되고, 돈의 흐름을 관리하거나 소비 습관을 점검할 기회도 줄어든다. 문제는 가계부 작성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충동적이고 계획 없는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어떤 항목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필요 없는 지출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과정이 생략되면서, 소비습관은 점점 무너지게 된다. 결국 돈을 버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해도 눈에 보이는 보상이나 변화가 없어 쉽게 흥미를 잃는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 "왜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숫자만 적는 기록은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아 동기부여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가계부 작성이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상이나 피드백 구조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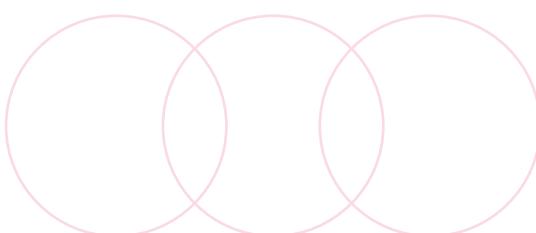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화성특례시 청소년 스마트 머니저 돈't worry는 화성특례시에 거주하는 8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용돈 사용 습관 형성과 건전한 금융 문해력 향상을 위해 AI 기반 맞춤형 가계부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책 특성상 화성특례시 전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청소년들이 디지털에 익숙하다는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구성한다.

돈't worry에서는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금융 미션의 종류와 구체적인 나이도 등을 회원가입시에 사전설문을 통해 파악하고, 학교나 청소년 관련 기관, 지역 금융기관 등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미션을 제안받아 미션 목록을 구체화한다. 그 후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청소년들이 수행하고 싶은 미션 종류를 앞선 목록 중에서 선택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미션은 연령별로 차별화 되어 초등학생에게는 용돈 기록하기나 간식비 절약 챌린지 같은 기초적인 내용을, 중고등학생에게는 교통비 관리나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저축 목표 달성을 등의 중급 과제를, 대학생에게는 생활비 예산 관리나 아르바이트 수입 관리 등의 고급 과제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연령대별로 만 8세부터 11세까지는 부모 연동 모드로 기초 경제개념을 학습하고, 만 12세부터 18세까지는 독립적 가계부 관리로 올바른 저축, 소비 습관을 형성하며, 만 19세부터 23세까지는 자기만의 주체적인 가계부를 완성시키고, 재정 자립을 실현한다.

돈't worry의 핵심은 가계부 작성 및 저축 관리 시스템이다. 용돈 대비 최소 저축 비율을 20%로 설정하고, 20% 초과 저축시 1%당 1포인트를 지급한다. 통장 연동을 통한 실제 입출금 내역 자동 기록으로 허위 작성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한다. AI 기반 개인 맞춤 미션 시스템은 일일 미션으로 실생활 경제 문제, 출석 체크 등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집중하고, 월간 AI 미션으로 전월 소비 패턴 분석 후 개인별 맞춤 절약 및 저축 미션을 제공하다. 위 미션들과 저축을 통해 얻은 포인트는 경기 지역 화폐로 전환, 화성특례시 공식 굿즈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단순히 개인별 가계부 관리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자체 사이트나 어플에서 친구들과 미션 성공률이나 포인트 현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소셜 기능을 마련하여 또래 집단 간의 건전한 경쟁과 상호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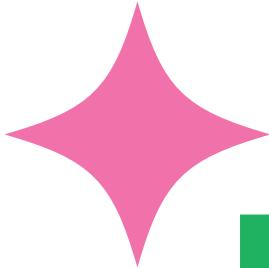


기대효과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는 단순한 소비 절제에 그치지 않고, 자기주도성과 경제관념, 더 나아가 삶의 태도 전반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용돈을 아끼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소액이라도 빈번하게 지출되는 금액이 모이면 큰돈이 되기 마련인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 패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출을 직시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한 달 리포트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되고, 나아가 포인트 적립 등의 보상 요소를 통해 지발적으로 돈을 아끼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단순한 저축 개념에서 벗어나 게임처럼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은 청소년들의 저축 습관 형성에 큰 기여를 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저축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는 쉽게 지루함을 느끼거나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미션을 완수할 경우 포인트를 획득하거나, 저축 목표 달성을 보상을 주는 시스템은 재미 요소를 더해 저축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청소년기의 올바른 소비습관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이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용돈과 소비 문제로 인한 부모님과 청소년 간에 경제적인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소비와 저축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은 보다 책임감 있는 소비를 하게 되며, 부모의 신뢰로 이어져서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경험은 장기적으로 미래의 돈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고 소비를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 오기 마련이다. 마성년자 시절부터 올바른 소비 습관과 저축 마인드를 길러두면, 향후 자산 관리나 투자 결정 등에서도 안정감 있게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처럼 학교 교육에서는 경제관념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스스로 돈을 관리해보는 경험은 실제적인 경제 감각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자율적인 재정 관리 경험을 통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 계획적인 소비, 미래를 위한 저축 등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돈 관리 경험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인성과 태도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다.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하고, 저축 목표나 소비 계획을 스스로 세우는 과정은 단지 재정적 자율성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업이나 진로 설정 등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한다. 이러한 경험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기르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포인트를 경기 지역 화폐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미션의 성실도와 저축 현황 등을 고려해서 가계부를 통해 경제, 금융 프로그램 우선 신청과 화성시 공공 알바 우선 선발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참여후기

이번 화성시 정책제안대회에 참가하며, 저희 Don't worry팀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정책이라는 단어를 삶의 문제와 직접 연결하여 고민하고, 이를 실제 해결방안으로 설계해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실제 예산과 시스템, 연령별 적용까지 고민하면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AI 기반 미션형 가계부 앱이라는 저희 제안은,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년 경제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뿌리가 단순한 용돈 관리가 아니라, 소비 습관, 가정 내 경제 대화의 부재, 지역사회 참여 부족 등 복합적인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하나씩 풀어가며 정책안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발표 준비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우리가 만든 정책이 현실 가능성과 지역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기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규모는 적절한가? 실제로 지속 가능한가? 화성시에 어떤 긍정적 순환을 만들 수 있는가? 등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며 정책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덕분에 현실성과 공공성을 갖춘 정책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당일, 대회장에 모인 다른 학교 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며 큰 자극도 받았습니다. 모두 다른 관점에서 화성시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상 깊었고, 그 속에서 저희 제안이 어떤 강점과 보완점을 가지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표를 하며 무대 위에서 떨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저희가 직접 만든 정책을 직접 전달했다는 생각과 결국은 끝까지 해냈다는 기쁨도 느꼈습니다. 또한 모든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심사위원분들이 피드백을 자세하게 진행해주셔서 어떤 부분에서 감점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였는지를 알게 되어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정책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저희는 대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한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보는 진지한 과정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정책으로 해결해보려는 시도들을 계속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오늘 저희가 발표한 이 정책이 실제로 화성시에서 적용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경제를 배우고 자립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3등

정서적 위기 청소년을 위한 AI 감정치유 인형 ‘온다(ON:DA)’ 활용 정서지원아이템 보급 및 프로그램 운영 제안 형성 정책

정책제안분야

인권, 안전, 생활

제안내용 요약

‘온다(ON:DA)’는 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 감정치유 인형입니다. 음성 인식 기능과 감정 분석 기술을 탑재해 청소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과 위로의 언어로 응답하며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돋습니다. 인형 형태의 휴대성과 친밀감 있는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위로받을 수 있으며, 앱과 연동된 대화기록과 감정 히스토리를 통해 지속적인 정서관리와 상담 연계도 가능합니다. 화성시 청소년들의 정서적 돌봄 환경을 보다 일상화하고, 학교 상담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하며, AI 기반 감정 지원 플랫폼 구축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ON:DO(온도)

장안여자중학교 2학년 진채윤
장안여자중학교 2학년 박가을
장안여자중학교 2학년 안시현
장안여자중학교 2학년 이세영
장안여자중학교 2학년 허다인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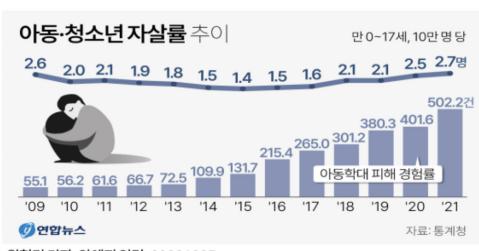
최근 청소년의 sns활동, 핸드폰 같은 인터넷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청소년의 자존감, 스트레스 같은 정서 위기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성시 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정서 돌봄 시스템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주변에 밀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이 지속되다 보면 자존감 저하, 우울, 자살 시도 등 위험 요인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수치는 실제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결국 '사람'과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결과에 도달하여 불안정한 청소년들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방법, 비극적인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김정치유인형키링 온다(ON:DA)"를 만들자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림]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 (만 6~17세)



*자료 출처: 연합뉴스, '어린이 우울증 5년 새 3배...5년간 총증고생 822명 극단선택' 기사 참조, 2023.09.07.
(<https://www.ytn.co.kr/view/AKR20230907054400530?input=1195m>)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스마트폰 챗봇 기반 위로 시스템인 '하잉'이라는 앱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잉은 사용자의 질문과 고민에 감정 분석 기술 및 생성형 응답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정서적 거리감과 지속성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기록하고 실제 공감이 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일상적이고 비밀스러운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잉 앱 소개 및 앱에 대한 리뷰 출처: 구글플레이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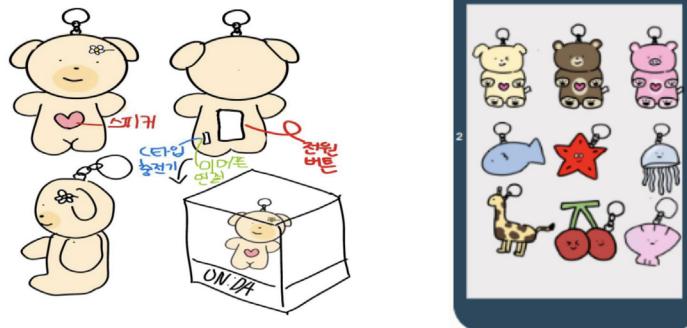
- 문제해결 가능성

온다는 청소년의 정서 문제를 예방하고 회복까지 도울 수 있는 실질적 솔루션입니다. 청소년이 혼자 끙끙 앓기 전에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 지지와 자기 이해를 경험하고, 상담이나 회복으로 이어지는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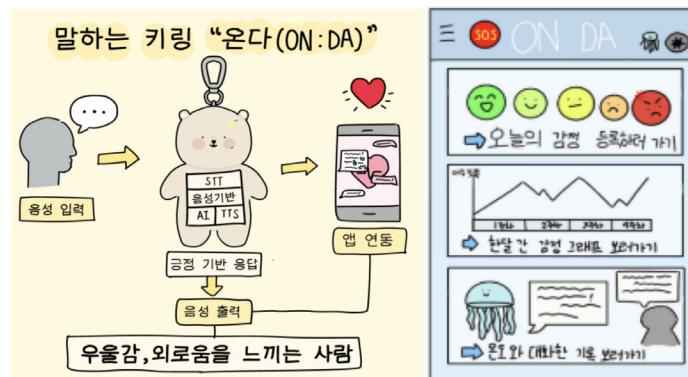
- 프로그램(온다) 제안내용

인공지능 위로 인형카링 '온다(ON:DA)'를 활용한 청소년 정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온다는 실제로 사용자와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넓은 인터페이스로 AI 음성대화, 감정 분석 및 위로 응답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온다의 자세한 사용 방법

1. 사용자가 인형의 내장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대화를 시작합니다.
- 2-1. (음성대화모드) 혼자 있는 장소에서 더 친근하고 실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다 인형은 사용자(학교 밖 청소년,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청소년 등)가 대화를 시작 → 음성으로 입력된 말을 앱과 연동되어 텍스트로 변환 → 변환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응답생성 → 생성된 말을 다시 음성으로 바꾸어 사용자와 대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와 음성대화를 하며 위로와 조언의 말을 합니다.
- 2-2. (채팅대화모드) 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모드, 누구나 편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앱을 통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온다 앱의 메인화면

3. 사용자의 앱에 연동이 되어 녹음된 음성대화나 채팅대화로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감정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취향 반영 → 자기표현의 즐거움

공감형, 부모형, 밝은 친구형 등 다양한 캐릭터 선택이 가능하고 아이돌 목소리, 가족 목소리도 설정이 가능해 개인 맞춤형 감정 친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요대상 및 타겟

학교 밖 청소년, 상담이 필요한 정서 위기의 모든 화성시 청소년입니다.

-운영방식 및 자세한 운영방법

운영방식: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꿈드림) 와 캠페인 운영, 전문상담연계 등으로 협력하며 청소년들에게 인형 보급 및 앱 사용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AI기술, 시제품 제작 등은 화성폴리텍대학과 협업하여 설계 및 온다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 온다로 앱 데이터 수집 및 감정기록을 통해 사용자의 정서적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협력기관(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치료 및 지속적인 추후 치료가 가능하게 합니다.

*1차: 정서불안정 청소년 대상으로 협력기관과 캠페인 운영

*2차: 효과분석 후 보완 및 대상 확대

-실현가능성

학교-지자체-전문기관 협업 기반으로 운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앱 기반 데이터 추적 및 수집, 음성-텍스트 변환, 정서 분석 기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도 심도 높은 기술을 직접 자신들의 생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기술에 대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높게만 보이던 미래 기술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품과 앱이 보장되어 있는 아이디어로 청소년들에게 위화감 없이 현실적 인터페이스로 이용될 수 있어, 시행했을 때 큰 기대효과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온다(ON:DA)가 필요한 이유

1. 기존 상담 시스템의 한계

청소년들은 1388이나 교사·부모님에게 바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유치해 보일까봐 꺼리는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움 요청의 첫 단계에서 많은 청소년이 멈추게 되는데요. 이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온다는 이 틈을 메워주는 1차 정서 필터가 됩니다.

2.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증가 및 정서적 미성숙

학업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청소년들이 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은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때에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인생의 첫 관문을 통과할 아주 중요한 열쇠 같은 시기입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고민들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도 심각히 고민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할 얘기들이 있습니다. 때론 너무나 사소해서 말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친근하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온다는 그런 청소년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웃어주며 청소년들의 작은 친구 겸 소소한 심심풀이 인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내 감정도 소중하다는 "자아존중감"

인형이 감정을 분석해 먼저 다정하게 말 걸고 위로함 → 아이가 "내 감정도 소중하구나"라는 감정 가질 수 있습니다. → 일상 속에서 감정 표현의 연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숙하고 올바른 자기표현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위로 받을 수 있는 작은 친구가 곁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친구와 멀어졌을 때, 시험에 낙담했을 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내 감정도 괜찮다는 '자기 존중감'"이런 감정이 유치한 게 아니야." "너의 감정은 아주 중요한 신호야." 같은 말을 통해 청소년은 자기 감정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고 정서지지의 일상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 상담 시스템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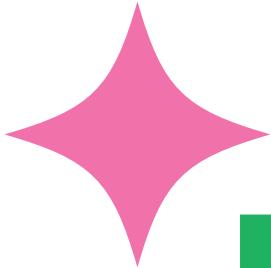
앱을 통해 감정 히스토리 확인, 위로 대화 저장이 가능하여 심리상담 연계 시, 전문가가 청소년의 감정 데이터를 사전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인형과의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전문상담과 연계했을 때 보다 깊이있고 솔직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1차 필터역할을 하여 전문상담사의 감정소비 및 심리적 스트레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다(ON:DA)"는 단순한 AI 인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년의 외로움, 소외감, 감정적 불안을 가장 먼저 알아주고, 다정하게 말 걸어주는 친구이자 마음의 쉼터입니다.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위로를 받고,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가며, 용기 있게 표현하고,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돋는 정서 회복 플랫폼입니다.





참여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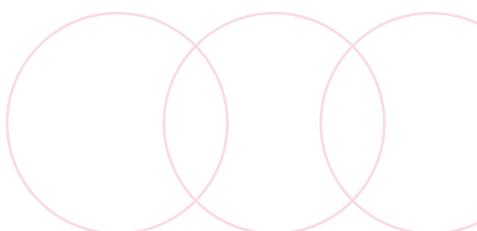
팀장을 맡은 진채윤 : 팀원들과 함께 한 달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뿌듯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직접 무대에 서서 많은 인원 앞에서 발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키워진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료를 조사하며 우리의 지역을 조금 더 사랑하고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구상을 맡은 박가율 : 처음 해보는 대회여서 좀 많이 긴장했는데 친구들과 토의하면서 한 대회여서 재미있었고 나중에도 이런 대회가 있으면 1번 더 도전 하고싶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함께 더욱 노력하며 친구들과 1등이라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 너무나 재미있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료조사를 맡은 이세영 : 이번 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정책이라는 것을 직접 생각해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지 않아도, 발표 준비를 하면서 떨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만든 정책을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디어 디자인을 맡은 허다인 : 화성시 정책제안대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발표할 때 떨렸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구체화를 맡은 안시현 : 이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기대되고 떨리고 신기했고 친구들과 같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비록 기대했던 것 만큼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재밌었고 본선 진출한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음년도에도 하고 싶습니다.



화성특례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활동 사진





본선진출팀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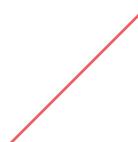


본선 대회





수상 사진





화성시청소년수련관이
화성시 청소년을 응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소년 화이팅 -



**2025 제7회
화성특례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자료집**

발행일

2025년 8월

발행처

화성시청소년수련관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유엔아이센터)

TEL 031.267.8841

www.hswf.or.kr